

# “작지만 힘있는, 열린협회로 위상 강화”

대한설비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 김주환 회장



제8대 시·도회장이 새롭게 구성됨에 따라 전국 시·도회는 시·도회장을 중심으로 제8대 집행부를 새롭게 구성하는 등 조직을 갖추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본지는 향후 3년간 시·도회를 이끌어갈 시·도회장을 인터뷰하여 사업계획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호에는 김주환 대구광역시회 회장을 만나보았다. [편집자주]

## 1 제8대 회장으로 선임된 소감과 각오

먼저 지난 4월 1일 개최되었던 정기총회에서 뜨거운 성원으로 대구광역시회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회원사 사장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IMF 사태 이후 대구지역 건설업계는 그야말로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기반을 둔 대형건설업체의 몰락으로 수도권의 메이저 건설업체가 무혈입성하여 지역 내 민간부문 건설물량을 대부분 잠식하고 있으며 공공발주부문에 있어서도 관련예산 부족 등으로 발주물량이 급격히 줄어들어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여 대구지역 회원사의 채산성은 악화일로에 있어 개점휴업 상태인 업체가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우리시회가 회원사의 권익을 위해 무엇을 해야할지,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해야 할지가 가장 큰 과제이고 실로 가슴에 와닿는 난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는 회원사와 함께 우리업계의 현안문제를 고민하고 협의해 하나하나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시회가 대구설비건설인의 진정한 대변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봉사하겠으며, 임기를 마치는 날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소신을 다하고자 합니다.

## 2 중점 추진 사업

### 첫째, 설비공사 분리발주의 제도적 장치 마련

우리 대구시회는 1989년 창립 이래 역대 회장님들과 선배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우리업계의 독자성 확보에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고 대구광역시 및 교육청의 설비공사 분리발주는 타 시·도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주기관장의 분리발주에 대한 필요성 인식 여부에 따라 분리발주하는 것은 지속적인 시행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대구광역시 건설산업활성화 조례를 개정·보완하여 우리 기계설비 분야를 특화시켜 분리발주의 제도적 장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 둘째, 기계설비 기능인력 양성 및 확보 주력

현재 기계설비 기능인력은 노령화 되어가고 있으며 신규로 진입하는 인력은 거의 없는 실정으로, 향후 3~4년 안에 엄청난 기능인력 수급난이 예상됩니다.

실제로 기능인력을 양성하는 시장을 살펴보면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실업자 재취업교육을 담당하는 직업전문학교가 대부분인데 교과과정은 단기간이라 실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배출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구광역시, 고용안전센터, 직업전문학교, 한국폴리텍대학과의 연계를 통해 기계설비 기능인력과 건설산업 핵심인력 육성 및 배출에 노력코자 합니다.

### 셋째, 회원사의 참여확대를 통해 화합 도모

협회 각종 행사에 전 회원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동참의식을 고취하고 회원화합 및 친목행사를 정례화하여 회원상호간의 과잉경쟁을 방지하고 상호 존중하여 서로 '윈-윈'하는 분위기 조성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 넷째, 작지만 힘있는, 열린협회로 업계위상 강화

타 건설관련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작지만 강한 협회, 열린협회, 신뢰받는 협회로 이끌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한다는 평을 듣는 경제단체로 부상함으로써 업계위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겠습니다.



▲ 김주환 회장은 취임 축하 화분 대신 들어온 쌀을 '독거노인, 사랑의 쌀 나누기'에 기증했다.

### 3 대구지역 회원사에게 당부 말씀

대구지역의 절대적 일감부족과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회원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회장직을 맡게 되어 실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겹겹제한도 폐지되어 자금과 기술력, 그리고 영업력이 월등한 종합건설업체가 우리 설비건설시장에 진입하는 등 업계의 환경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처럼 어려운 때일수록 업계를 대표하는 협회를 구심점으로 우리의 하나된 목소리가 필요하고, 화합과 단결이 요구되며, 우리업계의 공동이익을 위한 회원사의 대승적인 협조가 절실할 때입니다.

최근 일부 회원사가 분리발주된 설비공사에 대해 불성실 시공과 공정관리에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일부 공사감독관들이 분리발주에 대한 불만족을 표

출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리발주된 설비공사를 수주하신 회원께서는 반드시 성실·완벽시공과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설비공사 분리발주가 하루빨리 정착될 수 있는 건설환경 조성에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편 우리 건설산업의 트렌드가 대형화, 정보화, 그린화, 융복합화, 효율화, 다양화로 바뀌어 가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녹색건설산업 육성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국내 에너지 소비량의 40%를 담당하고 있는 기계설비분야는 녹색건설산업의 핵심분야이며, 향후 에너지절약 여부가 주택공급시장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회원사도 트렌드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우리시회도 회원사의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코자 하오니 회원사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 대구광역시회 김주환 회장은?

- 1961년 1월 14일생
- 대구공업고등학교 기계과 졸업
- 경일대학교 기계과 졸업
- 영남대학교 산업대학원 건축공학과 졸업

- 대구광역시회 표창
- 동대구세무서장 표창
- 대구상공회의소 회장 공로패

- 제4·5대 대한설비건설협회 대구시회 운영위원 역임
- 제6·7대 대한설비건설협회 대구시회 부회장 역임